

카프(KAPF)의 『농민소설집』과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土地)』 비교 연구*

—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

박 필 현**

요 약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각각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 당대의 대표적인 좌익 문학 단체에서 펴낸 농민소설집이다. 실질적으로 각 해당 단체에서 간행한 유일한 농민소설집이기도 한 이 두 소설집 사이에는 14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자리한다. 본고는 1933년 간행된 카프의 『농민소설집』과 1947년 간행된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가 가진 문제성을 확인하고, 두 소설집을 함께 살펴으로써 잇닿은 것과 변모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성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 프로 문학의 (불)연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시간적 간극이 큰 만큼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조직의 성격이나 목표, 작가군의 구성이나 작품의 형상화 과정 등에서 차이점을 보여준다. 『농민소설집』이 사회주의 운동의 지하화와 카프의 불세비키화 과정에서 생산되었다면, 『토지』는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던 해방기에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기치로 내건 문예운동의 산물이었다. 카프의 강경 소장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민소설집』에 비해,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내걸었던 만큼 『토지』는 동일한 작품 편수이지만 작가군의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4513)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수와 성향 모두에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에 더해 두 소설집은 공통적으로 농민소설을 선별·수록하고 있으며 각각 그 구체적 문제의식을 달리한다. 『농민소설집』에 수록된 일군의 작품들은 모두 농민조합 설립으로 귀결되며 『토지』는 토지개혁의 촉진이라는 간행 취지를 강조하였다. 이때 내용적 측면 보다 더 주목해 볼 것은 작품 및 소설집의 구현을 통해 드러나는 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다. 『농민소설집』이 다소 직접적이고 경직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토지』는 관련 범위의 폭을 넓게 잡아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선집은 근본적으로 혁명 단계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에서, 그리고 운동의 기술, 문학적 실천 방식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조선의 혁명 단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둘 모두 위기적 상황에서 단행본 출간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 및 활로를 모색한 매체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농민소설집』과 『토지』가 보여준 차이의 기저에는 보다 본질적인 연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불세비키화의 좌경화와 조선문학가동맹의 포괄적인 조직 구성은 일견 상반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인식적, 실천적 연속성에 의거해 보면 해방기의 조선문학가동맹은 식민지 시기 카프의 성실한 후계자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소설집이 보여준 구성 및 형상화 과정에서의 차이는, 정세와 관련한 조직의 구성과 변화는 물론 혁명 단계 및 과제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소설집』과 『토지』의 차이는 코민테른의 테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각 시기 해당 조직의 성격 및 지향 문제에 가깝다. 또한 이는 기저에 자리한 연속성에 기반한,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농민소설집』과 『토지』의 (불)연속성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로 이어지는 프로 문학의 계보를 다시금 확인케 한다.

주제어: 『농민소설집』, 『토지』, 농민소설, 카프, 조선문학가동맹, 대중화론, 출판 활동, 매체 운동

목차

1. 서론
2. 식민지와 해방기, 14년의 간극: 『농민소설집』에서 『토지』로
3. 차이 나는 '반복', 그 연속성
4. 결론

1. 서론

1925년 8월에 결성된 카프(KAPF)는 이데올로기적 문학 논쟁 시대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문학 단체이고, 조선문학가동맹은 해방 직후 문학계에서 주류를 차지하였던 좌익 문학인 단체이다. 『농민소설집』(별나라사, 1933)과 『토지』(아문각, 1947)는 각기 이 두 단체 곧 카프와 조선문학가동맹에서 간행한 소설집이다. 이기영의 「홍수」와 「부역」, 권환의 「목화와 콩」, 송영의 「군중정류(群中停留)」, 「오전 9시」 등이 수록되어 있는 『농민소설집』은 1933년 출간 당시 카프의 대표적인 농민소설을 모아놓은 선집이며, 이기영의 「개벽」, 이근영의 「고구마」, 강형구의 「동원」, 안회남의 「쌀」, 박승극의 「사랑」 등 총 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토지』는 해방기인 1947년 조선문학가동맹 특수위원회 농민문학위원회가 펴낸 소설집이다.

두 단체 및 그 활동에 대한 논자들의 지속적이고도 폭넓은 관심, 『농민소설집』과 『토지』가 두 조직이 펴낸 실질적으로 유일한 농민 소설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두 선집에 대한 논의가 극히 드문 것은 다소 예외적이다.¹⁾ 각각의 선집에 수록된 일부 작품에

1) 카프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카프비평자료 총서(태학사, 1990)의 간행은 물론 채호석의 『식민지 시대 문학의 지형도』(역락, 2010)나 임영천의 『카프 문학과 비평의 논리』(다운샘, 2006)를 위시해 이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카프에 대한 논의가 문학사 연구 및 근대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제외하고, 『농민소설집』과 『토지』를 함께 다룬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각 선집을 독립적으로 고찰한 논의 역시 희소하다.²⁾ 이러한 상대적 무관심은, 첫째 각 해당 단체가 다양한 활동 지면을 가지고 있었고 선집에 수록된 작품 대다수가 타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것을 추려 묶은 것이라는 점, 둘째 좌익 성향의 문학 단체가 펴낸 농민소설집이라는 공통성에만 주목하기에는 두 소설집 사이에 자리한 시간적 간극이 크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하겠다. 시기를 막론하고 기관지에 대한 열망이 컸던 만큼 각 해당 단체는 『문예운동』, 『예술운동』, 『조선문예』, 『문학』, 『우리문학』, 『문학평론』 등 기관지·준기관지 성격의 다양한 활동 지면을 갖고 있었고 실제 선집의 작품 상당수는 여러 종류의 타 매체를 통해 발표된 것을 재수록한 것이다. 즉 다양한 활동 지면이 있었기에 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연속간행물이 아닌 개별 출판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선집에 수록된 일부 작품의

문학을 다루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한 연구 역시 해방기를 다루는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 역시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연구가 있으며 해당 시기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아래의 논저를 들 수 있다.

권영민,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 운동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송희복,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2) 『농민소설집』에 대한 논의로는 류양선의 『KAPF 『농민소설집』의 정치적 성격-적색농민조합운동과 관련하여-』(『덕성어문학』 제6집, 1989.12)와 이미림의 『카프의 <농민소설집> 연구』(『인문학보』 20호, 1995)가 있다. 두 논의는 공히 『농민소설집』을 카프의 불세비키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전자는 1930년대 전반기 농민운동의 흐름을, 후자는 수록 작가의 작가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외에 소설집 『토지』에 대한 연구로는 박필현의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 연구-좌우의 갈등기, 문학적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 61집, 2015)를 들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집이 함께 다루어진 경우는 없다.

경우 작품 분석을 통해 별도로 다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농민소설집』과 『토지』 사이에는 1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적 간극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14년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과 패망 그리고 조선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러한 지점은 곧 『농민소설집』과 『토지』에 보다 주목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선 물리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각 시기 공히 소설집의 간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농민소설이 부각된 이유를 되묻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14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을 가진 두 소설집을 함께 살피는 것은 식민지와 해방 이후 프로 문학의 계보를 살피는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특히 『농민소설집』과 『토지』가 각 시기 당대 대표적인 좌익 문학 단체가 행한 부정기적 단행본 선집 출판 활동의 산물이자 내용적으로 각 조직이 펴낸 유일한 농민소설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둘을 함께 살피는 것은 두 단체의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 할 것이다. 시간적 간극을 넘어 잇닿은 것은 무엇이며 변모된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고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특성,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본고는 『농민소설집』과 『토지』가 간행된 배경과 선집의 구성 양상 및 내용을 두루 살핌으로써 단행본 출판 활동과 농민소설집 간행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농민소설집』과 『토지』의 반복 혹은 차이를 둘러싼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 프로 문학의 (불)연속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식민지와 해방기, 14년의 간극 : 『농민소설집』에서 『토지』로

1) 불세비키화와 민주주의 민족 문학

『농민소설집』은 1933년 10월 20일에 인쇄, 동년 10월 28일에 간행되었다. 간행 시기로 보면 1931년 1차 검거와 1934년 2차 검거 사이, 곧 불세비키화의 진행과 카프가 해산으로 나아가는 길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농민소설집』에는 총 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명 및 작가, 수록 순서 등은 아래와 같다.

작품명	저자	집필 년도	既 발표지 및 시기	사건 및 갈등
(1) 홍수	이기영	未詳	『조선일보』 1930. 8. 21~9. 3	T촌의 홍수 극복 및 농민 조합 건설
(2) 부역	이기영	1931. 6	『시대공론』, 1931. 9	지주의 건부역 동원으로 인한 갈등 및 농민조합 건설과 소작쟁의
(3) 목화와 콩	권환	1931. 6	『조선일보』, 1931. 7. 16	관청의 목화 재배 강요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과 농민조합 건설
(4) 군중정류 (群衆停留)	송영	1927. 1. 18	『현대평론』, 1927. 3	장리빚을 둘러싼 계원과 소작인의 갈등
(5) 오전9시	송영	1931. 6. 3	未詳	소작쟁의 이후 2차 거사 준비

표 1. 『농민소설집』 수록 작품 일람

〈표 1〉을 통해 보면 『농민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집필 혹은 발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간행 시기인 1933년도 카프 활동에 있어 긴박한 시기였고, 작품이 집필·발표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역시 조선공

산당 및 카프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시기였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928년 12월 7일 코민테른 정치서기국에서 채택한 12월테제와 1930년 11월 소련 우크라이나의 수도 하리코프(Kharkov)에서 열린 하리코프 대회이다. 이어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1928년과 1929년에 걸친 제4차, 제5차 조선공산당 사건이다. 이후 대부분의 재건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며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은 지하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기울여 볼 것은 이 시기 카프는 1927년 제1차, 제2차 방향전환을 거쳐 1930년에 이르면 본격적인 불세비키화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카프는 방향전환을 거치며 “자연생장적 문학운동”에서 목적의식을 갖는 문학운동으로 나아갔고, 이후 불세비키화에 따라 그 정치주의적 편향이 심화·좌경화되었다.³⁾ 조선공산당이 1국1당 원칙에 따라 코민테른 한국 지부로 승인받는 과정을 거치며 국제 코민테른과 연속성을 가지게 되었듯이, 1, 2차 방향전환과 불세비키화 과정을 거치며 카프는 조선공산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농민소설집』 수록된 5편의 작품 중 1931년 6월에 집필된 작품이 3편에 달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기영의 『홍수』 역시 1930년 하반기에 발표되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민소설집』은 1930년대 초반 집필된 작품들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작품 구성은 『농민소설집』의 간행 역시 불세비키화 과정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는 결

3) 불세비키화론을 정리한 「조선 프로예술가의 당면의 긴급한 임무」(『중외일보』, 1930. 8. 16)에서 안락은 불세비키화를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세계적인 단일한 유기적 메카니즘 가운데 자신을 결부시키고 명확한 계급적 기초에 선 조선 프롤레타리아트의 조직적 기구 가운데 우리들의 예술운동이 자기의 프롤레타리아적인 진실히 계급적인 기초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론이라기보다는 출발점에 가깝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있음이 아니라 ‘어떻게’와 ‘어떤’일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소설집』이 불세비키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 소설집이 조선공산당을 사이에 두고 국제 코민테른의 운동 및 방향성과도 잇닿아 있음을 의미한다. 김진석은 이 시기 카프가 농민소설에 주목하게 된 배경 논리로 프로문학론의 한계점에 앞서 카프의 대외적 종속성을 든 바 있다.⁴⁾ 그에 따르면 카프의 문학적 관심사가 도시 노동자에서 소작인을 중심으로 한 농민문제로 전이된 것은 소련 우크라이나의 수도 하리코프(Kharkov)에서 1930년 11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열린 하리코프대회가 기점이 된다. 실제로 카프 내에서 본격적인 농민문학론이 제기되기에 앞서 하리코프를 다녀온 권환의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⁵⁾ 1930년대 전반기 농민운동을 논하며 1928년 12월 7일 코민테른 정치서기국에서 채택한 12월테제에 주목하고 있는 류양선의 논의 역시 대외적 종속성을 지적한 김진석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⁶⁾ 12월테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혁명을 민주적 부르조아혁명으로 규정하고 토지혁명의 중요성과 빈농획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이

4) 김진석,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 3, 1994. 6, 96-101면.

이때 프로문학의 한계점은 당시 인구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그리고 그 중 절대 다수가 빈농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중적지지 기반 상실 문제에 직면해 있던 카프에게 있어 농민문학은 주요한 활로일 수 있었다는 점을 가리키며, 대외적 종속성은 카프가 그 이데올로기나 문예이론 대부분을 나프(NAPF)에 기대고 있었던 바 카프의 농민문학론이 라프(RAPF), 나프에서 제기된 문학론의 수용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한다.

5) 권환, 『하리코프대회 성과에서 조선프로예술가가 얻은 교훈』, 『동아일보』, 1931. 5. 14.

6) 류양선, 앞의 글 35-36면.

7) “조선혁명은 토지혁명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국주의의 타도 및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초래한다. 이것이 실제로 조선 혁명의 발단 제1단계에 있어서의 주요한 객관적 실절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조선혁명은 민주적 부르조아혁

시기 카프와 코민테른의 관계를 지적하는 것은, 이를 테면 카프가 코민테른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구현하는 식으로 둘의 관계가 기계적·도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1920년대 후반까지 둘의 관계는 그리 직접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1930년을 전후하여 카프 조직의 불세비키화가 진행되며 그 흐름을 이끌었던 구성원들은 (그것을 적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코민테른의 지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카프의 불세비키화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카프라는 조직 구성의 방향과 식민 지배 권력인 일제의 정책, 코민테른 차원의 방향성이 미묘하게 엇갈린다는 것이다. 불세비키화는 당의 확대와 강화에 대한 복무를 강조하며 전위의 관점을 확립하고 부각시키는 과정이었다. 이순옥은 『농민소설집』과 『카프시인집』에 참여한 문인들이 김창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들 소장파가 이미 조직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

명이다. …중략… 조선의 토지문제는 혁명적 플레비안(plebian: 모든 대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하는 방법)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토지혁명의 전개 없이는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는 얻어지지 않는다. 민족해방투쟁과 토지에 대한 항쟁의 결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년(1919년, 1920년) 혁명운동은 미약했고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중략…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농민문제·토지 혁명 문제는 주의운동에 있어서 대단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 노동자계급 및 그 전위대가 조선에 있어서 혁명의 승리를 완성하려면 농민에게 세력을 부식하여 슬로건 및 이해하기 쉬운 요구에 의해 농민을 극도로 감동시킴으로써 공동동작(動作)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중략… 과거에 있어서 공산당원은 거의 모두 지식계급 및 학생뿐이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공산정치의 실현은 고사하고 필요한 조직적 연대의 실행도 곤란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공산운동의 제1사업이 과거의 오류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소이(所以)이다. …중략… 조선공산주의자는 일대 노력을 기울여 첫째로 노동자를, 둘째로 빈농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12월 테제-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테제」의 일부이며, 본고에서는 권영민의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의 부록3 계급문학운동관련 주요 문건 중 782-795면에 걸쳐 수록된 것을 인용하였다.

수 있다고 논한 바 있다.⁸⁾ 실제로 『농민소설집』의 경우 소장파들에 의한 세대교체가 표면화되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집에 이름을 올린 이기영, 권환, 송영은 작품의 경향성과 함께 작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강경한 카프활동 경력을 갖고 있다.⁹⁾ 그런데 카프의 조직 구성 방향이 좌로 향해가던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일제는 학술 기예와 달리 시사 정치에 대해서는 검열을 강화했고, 또 한편 12월테제와 하리코프 대회를 통해 제시된 당 차원의 방향성은 보다 건설한 당 건설을 위한 빈농의 확보, 대중 지향성이었다. 당과의 관계, 당에 대한 복무가 주된 강조점이었기에 불세비키화를 주도한 인물들에게 있어 코민테른의 방향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동시에 이들이 놓인 현실 공간은 식민지 검열권력이 제 힘을 발휘하는 곳이었다. 결과적으로 『농민소설집』은 조직 내적으로는 이념과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식민지 검열권력의 억압 속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노농 대중을 향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 속에서 간행되었다. 이를 테면 『농민소설집』은 1930년대 억압적 현실 속에서, 카프 전위의 대중 지향이 빚어낸 산물인 셈이다.

『농민소설집』이 사회주의 운동의 지하화와 카프의 불세비키화 과정에서 생산되었다면 『토지』는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해방기의 산물이다. 공히 좌익 계열로, 해체된 카프의 계보를 잇는 단체이지만 조선문학가동맹은 그 배경이

8) 이순욱, 앞의 글, 248면.

9) 이미림, 앞의 글 192면.

부연하자면 이기영은 해방 이전 카프해산에 반대한 강경파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권환 역시 강경한 계급이론을 전개해 나간 이론가임과 동시에 주로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선전 시 곧 소위 '빠다귀 시'를 창작한 시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카프 창건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송영은 소설 보다 희곡 창작을 더 많이 한 희곡 작가이기도 하다. 이들 셋은 모두 해방 직후에는 임화 등이 주축이 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아닌 조선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두 단체가 결국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되자 이들 중 이기영과 송영은 일찍이 월북하였다.

된 시기가 확연히 달랐던 만큼이나 그 범위와 구성에 있어서 카프와 차이를 갖는다. 조선문학가동맹은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이 통합되면 구성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6일 결성된 조선문학건설본부는 임화, 김남천, 이원조, 이태준 등이 주축이 된 단체였다. 그리고 뒤이어 동년 9월 15일에 결성된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은 이기영, 한설야, 한효 등이 중심이 된 단체였다. 임화, 김남천 등이 1935년 카프의 해산계를 제출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며 이태준은 해방 전에는 카프가 아닌 구인회의 구성원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의 이기영 등은 카프 해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두 단체는 공히 좌파 문학 단체이면서도 다소간 그 성격을 달리하였으나, 1945년 12월 13일 결국 조선문학동맹으로 통합되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1946년 2월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전국조선문학자대회를 통해 앞서의 조선문학동맹이 그 명칭 변경을 확정하며 결성되었다. 두 단체의 통합 이후 이기영, 한설야 등 조선프로레타리아 문학동맹의 주축이 되었던 인물들은 대거 월북하였고 조선문학가동맹의 헤게모니는 통합 전 조선문학건설본부 쪽이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조선문학가동맹은 프로 문학 운동의 이념 대신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기치로 내걸며 광범위한 문인들을 구성원으로 포괄했다.

『토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 조선문학가동맹이 1947년 6월 25일 인쇄, 동년 7월 1일 발행한 농민소설집이다. 수록된 5편의 작품명과 작가, 수록 순서는 아래와 같다.

작품명	저자	집필 년도	既 발표지 및 시기	사건 및 갈등
(1) 개벽	이기영	未詳	『문화전선』, 1946. 7	북한의 토지개혁
(2) 고구마	이근영	1945. 11	『신문학』, 1946. 6	소작료 문제와 해방축하회 참석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3) 동원	강형구	未詳	未詳	8.15 기념회 참석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
(4) 쌀	안회남	未詳	『신세대』, 1946. 3	탄광에서의 징용 체험과 해방
(5) 사랑	박승극	1946. 12	×	징병 테러 등으로 인한 연인들의 이별, 인민위원회 결성과 좌익 탄압

표 2. 『토지』 수록 작품 일람¹⁰⁾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토지』의 경우, 1945년 후반기에서 1946년에 걸쳐 집필된 작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이 복잡다단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처럼 해방기 역시 짧은 기간 급격한 정세 변화를 거친다.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박헌영의 월북, 10월 항쟁 등을 거치며 남한에서 좌익 계열의 위치는 급속도로 축소되는데 1946년은 좌우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는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다. 『농민소설집』이 불세비키화와 코민테른의 방향성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다면 『토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아닌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내세운 조선문학가동맹의 통합·결성과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정세 변화에 따른 좌익 계열의 위기 속에 자리한다.

두 소설집의 작가구성은 카프의 불세비키화 과정에서 간행된 『농민소설집』과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기치로 내걸었던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가 가진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케한다. 『농민소설집』이 카프의 강경 주류 소장파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토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포괄적·허용적인 조선문학가동맹의 조직 범주를 반영하고 있다. 『농민소설집』이 조직 내에서도 유사한 성향을 가진 소장파 작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기영과 송영의 작품이 각각 두 편씩 수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토지』의 경우는 겹쳐지는 작가가 없다. 따

10) 이 표는 박필현(앞의 글, 215면)의 정리를 참조하여 일부 수정한 것이다.

라서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작품은 동수이나 작가는 각각 3명과 5명으로 차이를 갖는다. 『농민소설집』의 작가군 성격과는 달리 『토지』의 경우는 이기영이나 활동가로 익히 알려진 박승극은 물론, 해방 이전에는 카프 활동을 한 적이 없었던 이근영, 해방 이후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여준 바 없는 문학계의 신예 강형구, 1930년대 대표적인 신변 소설 작가로 꼽히던 안희남 등 각기 그 곁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작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기영, 송영, 권환의 구성이 의도적이었던 만큼이나 이기영, 이근영, 강형구, 안희남, 박승극을 아우르는 『토지』의 조합 역시 특징적인 것이다.

2) 인물 형상화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둘 모두 좌익 계열 문학 단체의 농민소설집이지만, 전자가 대중을 지향하되 조직 내부의 이념 강화를 보여주었다면 후자는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내세움으로써 불세비키화와는 상이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각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 역시 농민소설이라는 점에서는 동궐에 놓이지만 구체적인 작품 구현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농민소설집』과 『토지』를 함께 다루다보면, 우선 이기영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두 소설집에 공통적으로 이름을 올린 유일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농민소설집』에 수록된 『홍수』와 『토지』에 수록된 『개벽』의 초점화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홍수』의 박건성은 고향을 떠난 후 “쟁의단의 한 사람으로 열렬히 싸우는 투사”가 된 인물이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서로를 고발하거나 노름에 빠지기도 했던 T촌 사람들은 박건성이 주도한 노동야학과 큰 홍수를 겪으며 변화한다. 박건성이라는 인물의 특이성은 그가 그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방적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선진적 노동자 전위라는 데에 있다. 흙 잡을 데 없는 인물인 건설의 지도에 따라 T층 사람들은 운명론적 사고방식, 봉건적 생활풍속을 불식해나간다. 이에 반해 「개벽」의 원침지는 선량하고 성실하지만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지극히 소심한 사람이다. 소작하는 땅을 떼이게 될까봐 남들이 다 축제로 여기며 참여하는 시위에도 쉽사리 끼지 못하고 홀로 남아 짚신을 삼고, 인민위원으로 선출되어도 지레 손사래를 친다.

그렇다면 다소 도식적이라고 할 「홍수」의 인물과 구성, 그리고 이와 판이하게 다른 「개벽」은 각기 변증법적 세계관 그리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강화된 인민성의 강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일까.¹¹⁾ 그러나 정작 흥미로운 지점은, 「홍수」의 예와는 상반되게 『농민소설집』 대다수의 작품에서 농민운동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화와 콩」에는 농민조합원인 재선과 필성이 등장하지만 이들의 활약 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농민인 두운과 정선달이 눈에 띄고 역시 이기영의 작품이지만 「부역」에는 박건성과 같은 지도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전위나 영웅이 아닌 다소 평범한 인물군을 그리고 있는 것은 『토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민위원회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맹세하던 「사랑」 속 정희와 복순의 모습은 아무래도 혁명적 낭만주의의 기계적 도입처럼 보이지만 이 외의 인물들은 공히 소박하고 평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법하다. 즉 변증법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공식화된 좌파 창작방법론과는 무관하게 『농민소설집』과 『토지』에서는 공통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전위 대신 상대적으로 평범하고 소박한 인물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¹²⁾

11)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카프 창작 양식의 주요 범주는 변증법적 리얼리즘이었다. 그리고 1934년 제1회 소비에트 작가회의를 거치며 대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이후 좌파 문학의 공식적 창작방법으로서 부동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사실 『농민소설집』과 『토지』에서 보다 주목할 만한 차이는 어떤 인물인가가 아니라 인물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에 있다. 『농민소설집』 속 인물들은 사건 속에 놓여있을 뿐 구체적인 내면 갈등은 삭제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인물로서의 형상화가 미흡하다. 이에 반해 『토지』 속 원점지와 대봉은 땅을 떼일까 걱정하여 시위에 끼지 못하고 췌신을 삼거나 거짓 배았이를 하기도 하고 박노인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문을 남길 수 있을지 그리하여 도대체 무엇을 경작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한다. 이처럼 『토지』는 거시적인 사건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물들의 소소한 생활 속 고민을 구체적으로 그려 생동감을 갖는다.

아울러 또 다른 차이로 두 소설집 전반에 걸친 문제의식을 꼽을 수 있다. 『농민소설집』의 문제의식은 궁극적으로 농민조합 설립으로 정리된다. 이는 코민테른의 요구 곧 빈농의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토지혁명이 결국 농민조합 설립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홍수』, 『부역』, 『목화와 콩』은 농민조합 건설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그리고 있다. 『홍수』는 일본 방적공작으로 팔려갔다가 귀향한 박건성을 중심으로, T촌이 극심한 홍수 피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한편 이 과정에서의 공동체 생활 경험을 토대로 농민조합이 결성되어 소작투쟁을 벌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부역』에서는 지주 강참봉의 건부역에 동원되었던 어린 근행

- 12)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평범한 인물군과 이들이 접하는 소소한 갈등 상황 등은 예술지상주의적 경향이나 통속화적 경향을 지양하고 문학을 통해 대중의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거나 편향성을 극복하며 올바른 문학과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인민대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대중화론과 통하는 바 있다 하겠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던 대중화론은 1946년 후반기에 이르러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다시금 제기된다. 해방기 대중화론과 관련해서는 김영진(『해방기 대중화론의 전개』, 『어문론집』 28호, 2000), 박정선(『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화대중화 담론과 조직적 실천』, 『어문학』 93호, 2006), 윤여탁(『해방정국의 문학 대중화 운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18, 1989)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중상을 입게 된 것을 계기로 마을사람들이 지주와 대립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각성한 농민들이 근행을 연락책으로 삼아 읍의 농민조합 간부와 소식을 주고받으며 농민조합 설립을 꾀하는 한편 수확기에 소작쟁이를 다시 일으킬 것을 계획하게 된다. 1930년대 이르러 병참기지화 정책을 펼치게 되며 일제는 남면북양(南棉北羊)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했다.¹³⁾ 권환의 『목화와 콩』은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관청의 명령을 어기며 목화가 아닌 콩을 심은 두운, 정선달 등이 결국 관청과 농업 기수들로부터 콩밭을 지켜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두운, 정선달 등은 재선이나 필성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후 콩밭을 갈아엎고 목화를 심으려는 관청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여 결국 콩밭을 지킨다.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푸른 콩이 먹음직스럽게 자라는 OO지역에 농민조합 지부가 설립되었음은 물론이다.

텍스트의 후반부에 수록된 송영의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앞의 세편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타 작품에 비해 1927년 1월로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집필된 『군중정류』는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갈등은 드러나지만 그것이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비판이나 농민조합 등의 조직운동으로 연계되지 않고 문제적 개인의 도독결과 방화라는 즉흥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면 신경향파 소설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오전9시』는 농민조합 설립 과정이 아니라 소작쟁의 이후 삼엄한 경계 속에서 이차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일견 이기영, 권환의 작품과

13) 이경란은 일제시기 동안 농업근대화를 추동하고 '근대성'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존재는 바로 조선총독부-일본제국주의-였으며, 그 중 농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총독부 농업정책의 대변자는 농업기수였다고 말한다. (이경란, 『1930년대 농민소설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생활』,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대국학연구원편, 해안, 2004, 419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목화와 콩』의 갈등이 타 작품에서처럼 지주 vs 소작인이 아니라 관청 vs 농민이라는 점은 더욱 눈길을 끈다.

그 결을 달리하는 듯한 송영의 이 두 작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내용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송영의 두 작품은 함경남도 흥원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¹⁴⁾ 즉 『군중정류』와 『오전9시』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 서로 연속성을 갖는 작품으로, 농민조합 활동이 강하게 발생하였던 특정 지역의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였기에 어찌 보면 가상의 사건을 담은 이기영이나 권환의 작품 보다 동시대 농민조합운동 선전에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다.¹⁵⁾ 이처럼 『농민소설집』은 수록된 모든 작품을 통해 농민조합 문제를 다루고 있다.

『농민소설집』이 작품 전체에 걸쳐 농민조합을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토지』에서 부각되는 것은 토지개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농민소설집』의 전작이 농민조합 설립과 활동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토지』의 경우,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북한의 면모를 긍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개벽』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의 경우 명시적으로 토지개혁의 방향성이나 가치 등에 대해 언급·선전하는 서술은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구마』, 『동원』에는 해방축하회 혹은 8.15기념회 참석과정이 그려지고 있고 이러한 집회가 토지개혁에 대한 선전장이기도

14) 이는 박승극의 『『농민소설집』 Book Review』(『조선일보』, 1933. 12. 14)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박승극은 『군중정류』에 대해 “이것은 흥원문서××사건을 취재한 작으로 특히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오전9시』에 대해 “역시 ‘흥원××사건’을 취재한 것으로 『군중정류』에 비해서 일층 진보된 완전한 농민문학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다. 또한 竝木眞人の 『식민지하 한국에서의 지방민중운동의 전개』(『조선사연구회논문집』 1983. 3. 317-318면)에 따르면 흥원 지역에서는 1931년 5월 경 ‘호세연남진정테모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31년 8월~10월에 걸쳐서는 ‘흥원농민조합원 증서소각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竝木眞人の 글은 본고에서는 류양선의 논의(앞의 글, 45-46면)에서 재인용하였다.)

15) 류양선, 앞의 글 46면 참조.

했다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은 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지만, 『쌀』의 경우는 배경 자체가 일제 시기인 만큼 당시 최고의 이슈였던 토지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 『사랑』의 경우 역시 작품 전반에 걸쳐 강조되는 것은 토지개혁 보다는 좌익 탄압 분위기 속에서의 인민위원회 활동이다.

『토지』는 그 간행사를 통해 작품 전반에 걸쳐 토지개혁을 촉진하고 농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작품을 선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이 서술 그대로라면 『개벽』 이외의 작품들 역시 토지개혁 촉진을 위해 그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해방축하회 혹은 8.15기념회 참석의 독려는 물론 『쌀』에서 구주 탄광에서 가마니에 담긴 것이 조선 쌀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보는 삼룡이를 본 안주사의 각성 곧 “농민은 토지의 아들이고 쌀은 농민의 아들이다!”라는 깨달음이나 미군정의 좌익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위원회 활동 역시 토지개혁 촉진에 일조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농민소설집』과 『토지』 사이의 이와 같은 간극을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송영의 『군중정류』를 들 수 있다. 『군중정류』는 1927년 이미 완결·발표되었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소설집』에서는 종결부가 생략되어 수록된다. 순호가 계원들이 빗보증으로 받아둔 문서뭉치를 들고 도망치는 과정을 묘사하던 중 문장조차 종결짓지 않은 채 “以下略”으로 처리된 것이다. 생략된 원작의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다.

‘여보슈들 왜 날따라 오슈. 내가 도적놈인 줄 아슈. 당신네들이 도적마진 것을 차져주는 것이라우.’ 순호의 목소리는 료량하였다. 그리고 또 무에라고 크게 외친다. 들니지는 안는다. 바람은 분다. 눈보라는 치기를 시작한다. 계원들은 그냥 작질너

쫓차 올라간다. 순호는 유유히 섰다. 여러 군중은 그냥 섰다. 일종 구슬픈 생각이 모든 군중의 가슴을 휘저겨려 노았다. 그러자 순호의 짹짹하구나 떨리는 목소리가 낮다. 크다. 산이 울린다. 그러자 산언덕 위에서 연기가 난다. ‘자 봐라. 탄다. 빗뭇치가 탄다. 탄다!’ 모든 군중은 해연하였다. 계원들은 아조 밋쳤다. 알연 한달밤 눈싸힌 산속에서 한줄기 연기는 올노오고 있다. 군중은 뻥하게 치다보고만 섰다.¹⁶⁾

사실 『군중정류』에서 형상화된 순호의 행동, 즉 도둑질과 방화는 당시 카프 맹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다.¹⁷⁾ 마지막 장면을 생략한 것이 저자인 송영의 자기검열에 따른 선택이든 편집자의 선택이든 간에 이는 결국 작품을 평가하는 조직의 기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 『군중정류』의 종결부 생략과 『토지』의 다변화된 사건이 보여주는 차이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카프와 조선문학가동맹이 무엇을 농민문학의 전범으로 생각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실제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폭에 대해 각 단체들이 취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토지혁명과 빈농확보라는 과제를 접한 『농민소설집』이 다소 직접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농민조합을 다루며 그에 더해 그 나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그려내고자 했던 것과 달리, 그로부터 14년 후 『토지』는 토지개혁의 관련 범위 진폭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잡고 있으며 그런 만큼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역시 유연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 이 부분은 『군중정류』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는 최초 발표된 『현대평론』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농민소설집』에서는 “以下略”으로 삭제되었다.

17) 대표적으로 윤기정은 “주인공의 행동이 개인적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만은 취할 점이 있지 기외에는 모두가 자연발생기에 속한 내용”이라고 지적하였고 임화(『송영형제』, 『신동아』, 1936.5) 역시 추후에 신경향파 소설의 낭만주의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소설들이 절망의 폭발, 개인적 반항의 직시 투쟁에 비해 조직적인 점만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차이 나는 ‘반복’, 그 연속성

1) 현실적 위기와 대중 지향성 : 단행본 출간 러시

카프와 조선문학가동맹은 공히 출판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계급주의 문학에 있어 실천운동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두 조직의 출판활동에 있어 주가 되는 것은 정기적 잡지 매체의 발행이었다. 권환, 김남천 등을 비롯한 조직 구성원들은 식민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기관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열망의 강도나 지속성과는 무관하게 해당 시기 기관지 성격의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프는 『문예운동』, 『예술운동』, 『조선문예』 등을 그리고 조선문학가동맹은 『문학』, 『우리문학』, 『문학평론』 등 기관지·준기관지 성격의 다양한 잡지를 발행했지만 이러한 활동이 안정성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¹⁸⁾

『농민소설집』과 『토지』의 간행과 관련하여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우선, 각각의 농민소설집 간행이 매우 짧은 시기 급속히 이루어진 비정기적 단행본 출간 활동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각 시기 카프와 조선문학가동맹의 숨 가쁜 출간 활동의 과정에서 발간되었다. 『농민소설집』은 1933년 10월 20일에 인쇄, 동년 10월 28일에 간행되었는데, 이에 앞서 1931년에는 『카프 시인집』(집단사, 1931년 11월 24일 인쇄, 동년 11월 27일 발행)

18) 이를테면 1926년 2월 창간된 『문예운동』은 당해 6월 통권 3호로, 1927년 11월 창간된 『예술운동』과 1929년 5월 창간된 『조선문예』는 기껏 통권 2호로 종간되었고 해방 이후 간행된 『문학』의 경우도 통권 8호로 끝났다. 이는 때로는 조직의 헤게모니 개편과 같은 내부적 요인 때문이기도 했고(예컨대 카프 최초의 기관지 『예술운동』의 발간 중단이나 카프 동경지부 주도의 『무산자』 발간은 1929년 동경지부와 경성본부 간 분열, 이론투쟁과 무관하지 않다.) 또 때로는 급격한 정세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기도 했다.

이, 1932년에는 소설과 희곡을 묶은 『카프작가7인집』(집단사, 1932년 3월 18일 인쇄, 동년 3월 20일 발행)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1947년의 경우는 『토지』(1947년 6월 25일 인쇄, 동년 7월 1일 발행)외에도 『조선소설집』(1947년 6월 20일 발행)과 『조선시집』(1947년 3월 발행)이 잇달아 간행되었다.

이에 이어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소설집이 간행된 1930년대 초반이나 1947년이 전반적인 조직 활동 및 출판이 용이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 식민지 검열권력은 시사 정치를 집중적으로 향했는데, 정작 1920년대 후반 카프는 불세비키화 경로를 밟아갔다.¹⁹⁾ 물론 이 과정에서 『무산자』나 『조선문예』 등이 간행되기도 했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고, 결국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문학의 양적 팽창은 카프와는 무관한 것이 되었다. 1947년 조선문학가동맹이 처한 상황 역시 카프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김민환은 해방기의 언론계를 남로당 계열, 진보주의 계열, 자유주의 계열로 나눈 바 있는데,²⁰⁾ 이와 같이 세 계열이 경합하던 상황은 1947년을 지나며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어 이른바 자유주의 계열의 언론들만이 생존하고 지속되는 상황으로 변모했다.²¹⁾ 이처럼 1930년대 초반 그리고 1947년은 각 조직이 심각

19) 한만수는 식민지 조선의 검열은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자기헌시적 검열에서 자기은폐적 검열로 이행해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검열권력의 '학술 기예'에 대한 상대적 느슨함과 '시사 정치'의 집중적 억압을 논한다. 그에 따르면 식민 시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분량의 작품이 발표된 1930년대 문학의 양적 팽창은 신문 문예면의 증면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때 민간신문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기업화된 자본이며 자본은 권력의 검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는 검열 권력이 '시사 정치'를 주로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문예면 증면과 통한다고 본다. (한만수,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37집, 2009.)

20) 김민환,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나남, 2001, 30-32면.

21) 김휘열, 『해방기 『문화시보』의 매체적 위치와 의미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 41집, 486면.

한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운동과 매체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매체의 문예면 증대라는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1920년대 후반 이후 카프 계열 작가들의 문학 활동은 소위 부르주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²²⁾ 그런데 김기진과의 논쟁 과정에서 1929년 임화는 “주로 부르신문과 부르잡지를 통하여서만 행하던 운동(주로 작품) 경향 즉 우리들 자신의 기관의 강대화보다도 다른 기관의 이용을 과증평가한 그것을 단연히 극복하여야 한다”²³⁾고 주장한다. 짧은 시기 급속히 이루어진 단행본 출판 활동은, 좌익 이념을 표면화한 기관지의 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들 자신의 기관의 강대화”를 피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주장의 의미를 노농대중을 향한 배포망의 문제로 볼 것인지 그 이상의 매체 전략으로 볼 것인지는 아직 남아 있는 문제라 하겠지만 정기적인 기관지 발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괄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나아감과 더불어 적극적인 단행본 출간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 카프의 매체 전략을 다른 일군의 논의들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이들의 전략이 문학작품 개념이나 기존의 표상체제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²⁴⁾ 이 시기

22) 이원동은 김기진이 부르주아 매체의 압도적 영향력에 주목한 것에 반해 도쿄 그룹 논자들의 일차적 목표를 카프 조직의 기관지 건설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의 논의가 가진 문제로 식민 권력의 검열과 탄압 때문에 기관지 중심의 조직 건설이라는 목표는 거의 실현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어서 그는 카프 조직의 기관지는 지속될 수 없었고, 카프 작가들의 작품 대부분은 합법적 조건 아래에서, 혹은 부르주아 매체와 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말한다. (이원동, 『예술 대중화 논쟁과 매체 전략의 의미』, 『어문학』 제127집, 2015, 378-379면)

23) 임화, 『김기진 군에게 답함』, 『조선지평』 1929. 11.

24) 이원동은(앞의 글, 387면) 도쿄 그룹의 매체 전략이 결국 작품의 제작과 그것의 수용이라는 맥락보다 다른 예술 갈래들과 뒤섞이고 나아가 대중들의 일상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물리적인 그릇’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장 문학에 대한 개념을 전복시키거나 기존 매체 이상의 것으로 바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프가 보여준 매체 운동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경향은 해방기에 이르러서도 반복된다. 비록 『문학』은 1948년 7월까지 간행되었지만, 다소 숨 가쁘게까지 보이는 1947년의 출판 활동은 남한에서 좌익 계열의 위치가 급속도로 축소됨에 따른 위기의식과 다시 제기된 대중화론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물리적 그릇’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던 만큼 한 권의 책으로서 두 소설집이 갖고 있는 물리적 양태도 흥미로운 지점을 갖고 있다.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공히 1단 구성으로 행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활자 크기 역시 크며 둘 모두 표지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²⁵⁾ 이러한 현상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문예 대중화

삶 속에서 정치적 효과를 낳는 것으로 상상되었다고 보며, 이 지점에서 도쿄 그룹의 매체 전략의 의미를 찾고 있다. 차승기 역시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대중화』(『한국학연구』 제37집, 2015.)에서 임화의 주장에 대해 식민지/제국의 언설-법-미디어의 표상체제를 넘어서 노동자·농민 대중과 만나야 한다는 지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프는 1930년 4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했으며, 예술운동 조직을 창작역량보다 투쟁역량에 입각해 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의 지향은 이미 ‘문학작품’의 개념을 넘어서신 곳으로 나아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권환을 논하며 ‘문학성’이라는 미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으며 그의 시는 고전적 양식론보다는 매체운동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라고 본 조영복(『권환의 대중화론과 매체론적 지평』, 『한국시학연구』 25집, 2009)의 논의에서도 유사한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는 도쿄 그룹의 논의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데, 체제가 규정한 표상체제를 넘어서 노농 대중을 만나고자 하였다라는 지향성의 구성과정 및 그 구체적 발현 양상에 대한 논의는 남아 있는 과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직운동과 카프운동을 기계적으로 등치시킴으로써 갖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해 대중을 향하고자 한 이들의 매체 전략이 과연 코민테른의 테제와 완전히 별개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25) 다만 『농민소설집』에는 농기계 위에서 모자를 들고 웃고 있는 농민의 모습 즉 이국적인 농촌의 풍경이 작게 삽입되었다면 『토지』에는 짧은 담뱃대를 입에 물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김기진의 주장 때문이다. 두 소설집은 기관지 확보의 필요성에 더해 그가 주장한 바, 즉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4호 활자의 사용, 표지에서의 그림 인쇄 등을 환기시킨다. 김기진은 작가의 창작 기술에 대해 주로 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화 등의 도쿄 그룹과 의견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강연, 낭독, 영화 상영, 연극 공연 등의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는데, 활자의 크기나 그림의 배치 등 그가 제기한 매체 전략은 대중성 확보와 직결된 것이다. 요컨대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새로운 매체 전략이 제시되며 다양한 분야로의 활동 영역 확대와 더불어 전통적 활자 매체를 도구로 한 연속적인 단행본 발간 운동 역시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리적인 그릇’에 대한 관심이 커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카프와 조선문학가동맹의 연속적인 단행본 출판 활동은 공히 위기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 활로를 찾아가려는 매체 운동이다. 즉 카프와 조선문학가동맹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이와 같은 비정기적인 단행본 연속 출간은 외부적 위기에 따른 응전, 문학적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순옥에 따르면 기관지는 노농 대중을 겨냥한 대중적 잡지와는 다른 자리에 있다. 독자층 자체가 내부 구성원이나 당대 지식인층을 겨냥한 것으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한편 조직의 구성원을 확보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²⁶⁾ 이와 달리 별개의 매체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작품들을 조직의 이름을 걸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 퍼내는 출간 사업은 대중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의 모색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조직을 대중에게 유포화시키는 전략이다. 이처럼 『농민소

고 한 손에 벼뭉치를 들고 있는 조선의 농촌 풍경이 한 면 전체를 차지하며 담겨 있다.

26) 이순옥,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벌』』, 『한국문학논총』 제 37집, 2004, 246면.

설집』과 『토지』의 간행은 그 자체로 위기적 현실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 하나의 전략이기도 했다.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내걸었던 기치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달랐으나, 두 소설집 모두 이례적인 단행본 출간 러시 속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이는 각 시기 외부적 어려움에 직면해 하나의 돌파구로 기획된 것으로, 대중을 향해 조직을 유효화하는 활동이자 대중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 매체 운동의 일환이다.

2) 혁명 단계의 공유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농민소설

1930년대 초반과 1947년에 다소 이례적인 단행본 출간활동이 있었다고 할 때, 그 출판과정을 형태적으로 살펴보면 각 시기별로 대표작을 묶은 시집과 소설집이 순차적으로 간행된 뒤에 『농민소설집』, 『토지』 등 농민소설을 별도로 묶은 작품집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공히 위기 상황 속 연속적인 단행본 출판 과정 중에서 시집, 소설집의 뒤를 이어 간행되었고 그에 앞서 간행된 단행본들이 각 장르에 따른 선집임에 비해 두 작품집은 내용적인 유사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이성을 갖는다. 각 장르별 대표성을 갖는 단행본 간행 작업과 농민소설집 간행 작업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농민소설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대해 되묻게 된다. 시의적으로 농민소설을 부각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일 텐데 이는 어떤 이유 때문이며 어떻게 드러나는가.

『카프시인집』이나 『카프작가7인집』의 경우 “조선(朝鮮)푸로레타리아예술동맹문학부편(藝術同盟文學部編)”이 제목 아래 배치되어 있음에 반해 『농민소설집』은 그 편집자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 카프라는 조직의 주도로 간행되었으나 『농민소설집』만 편집자를 달

리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편집자의 차이는 『토지』의 경우에도 반복된다. 『조선소설집』과 『조선시집』은 각기 조선문학가동맹 각부위원회 시부위원회편, 조선문학가동맹 각부위원회 소설부위원회편으로 되어있으나 『토지』는 조선문학가동맹 특수위원회 농민문학위원회편으로 기재되어 있다.²⁷⁾ 각 농민소설집에 앞서 발행된 다양한 선집과의 편집진 차이, 즉 편집자의 생략 혹은 기존 조직과는 다른 별도 조직 구성이 가리키는 것은, 우선 『농민소설집』 및 『토지』가 앞서 연속 간행된 일군의 선집들과는 성격적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박영희가 쓴 서문에 따르면 『카프작가7인집』은 1925년 이후 1931년까지의 작품 중에서 “역사적 사실에 귀착시키지 안코 현금에 있어서도 손색이 업슬 작품”을 골라 묶은 것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우리들의 작품을 노동자에게 농민에게 읽히지 않으면 안이 되고 그럼으로 그들에게 읽히려면 먼저 우리들이 독특한, 또는 계급적으로 순수한 출판물을 내노치 안으면 안이 된다. 그것은 보통 세간의 잡지 형식이 안이라 ‘잡꾸’ 작가만이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계급적 처지에서 기획한 출판물을 의미한다.”고 그 간행 취지를 밝히고 있다. 『조선소설집』 역시 해방기 문학적 목표로 이미 누차 언급해 왔던 민주주의 민족문학 건설을 확인·강조하는 한편, 단편 중 “과거1년간 우리 문학작품속에서 최고수준의 것을 추리라”하였다고 설명한다. 요컨대 『농민소설집』과 『토지』에 앞서 간행된 각 선집들, 즉 『카프시인집』과 『카프작가7인집』은 이를 테면 당대 카프가 지향

27) 각부위원회는 애초에 조선문학가동맹의 조직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특수위원회나 농민문학위원회는 초기 조직 구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토지』의 편집자인 조선문학가동맹 특수위원회 농민문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박필현(앞의 글)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농민문학위원회의 결성은 『문학』 3호(1947.4)에 수록된 「농민문학운동에대한결정서」 및 「조선문학가동맹 농민문학위원회내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데, 「농민문학운동에대한결정서」의 작성일자가 1946년 12월이라는 점에서 1946년 하반기에 이르러 일정의 논의를 거쳐 구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던 문학적 방향에 걸맞은 일종의 장르별 ‘대표 우수작’이고 『조선시집』과 『조선소설집』은 조선문학가동맹이 지향하던 문학적 방향에 걸맞은 ‘올해의 우수작’인 셈이다.

『농민소설집』의 간행 취지에 대해서는 박승극의 논평을 통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며 『토지』는 간행사를 통해 그 취지를 적시하고 있다. 박승극은 『농민소설집』이 간행된 이후 “카프에 소속한 작가라든가 기외 경향적 제작가들이 대부분 근본문제와 아울러 창작방법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터임으로 그것을 명백히 제시하여 규정하는데 큰 의의”²⁸⁾라고 논한 바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간행 취지는 토지개혁의 촉진으로 명시되어 있다.²⁹⁾

『농민소설집』과 『토지』에 함축·구현된 혁명 단계나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농민소설집	토지
혁명 단계	민주적 부르조아 혁명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
당면 과제	토지혁명, 건설한 당 건설을 위한 빈농(貧農)확보(→농민조합 설립) 농민문학 창작 방법 구현	토지개혁 완수 농민문학 창작 방법 구현

표 3. 혁명 단계 및 당면 과제 인식 비교

28) 박승극, 『농민소설집-농민문학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1933. 12. 10.)

29)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독립에있어 가장 중대한문제인 토지개혁이 남조선엔 아직 실시되지못하여 책으로써 그것을 촉진해야만 될 시급한 형편이라면 농민문학에 종사하는 문학가의 임무야말로 얼마나 더 크다할것인가.(…중략…) 이러한 필요에서 우리동맹의 농민문학위원회는 농민문학총서의 간행을 계획하여 농민에관한 각종의문학서를 계속하여 출판할작정이다. 그계획을 첫 사업으로 우선 소설집 『토지』를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 모은 것은 주로 현재 남조선을 중심한 작자와 작품이고, 『개벽(開闢)』은 북조선토지개혁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머리에 올라 넣었다. 그런데 작자의 특성 및 작품의 영원성등… 그러면서도 오늘날 시급한 요청에 순응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옳은 노선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수 있을…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편집하였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조선문학가동맹농민문학위원회편, 『토지』 간행사, 이문각, 1947. 밑줄 필자)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기획과 구현 과정에 있어 중요한 공통성을 갖는다. 그 하나는 민주적 부르조아 혁명 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표현된 바, 조선의 혁명 단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소설집』과 『토지』 사이의 14년 간극 동안 무단통치나 병참기지화 정책은 물론 일제 패망과 해방이라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설집 간행 당시 조선의 혁명 단계에 대한 인식은 동일한 것이다. 해방기의 토지개혁 문제는 12월테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혁명 곧 “혁명적 플레비안”과 고스란히 겹치지며, 조선문학가동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내세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두 농민소설집이 모두 문학적 지향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 제기된, 시의성을 가진 특수한 문제에 대한 민감한 반영이자 응답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이다.³⁰⁾

1920년대 후반이후로 우리 문학계에 상당수의 농민소설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³¹⁾ 카프 내부에서도 대중화론과 농민문학론이 제기되었다. 박진숙은 1920~30년대 농민문학 논의는 ‘당위’로서의 농민문학 설립에 매쳐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³²⁾ 코민테른이 12월테제를 통해 당시 조선의 혁명 단계를 민주

30) 출판 활동을 통해 이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 역시 유사하다. 다만 『농민소설집』에서는 공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별성 확보를 당위적으로 의식하였음에도 표면적으로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토지』에 이르면 총서 발행 등 향후 기획과 특수위원회 구성이라는 조직 개편 등으로 구체화되어 보다 진일보한 면모를 갖는다고 하겠다.

31) 1925년에 이기영의 「민촌(民村)」, 「쥐이야기」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 외에도 이 시기에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이익상의 「흙의 세례」, 김동인의 「시골 황서방」 등의 작품 역시 등장하였다. 1920년대 후반을 거쳐 1930년대 이르러 농촌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실제로 매우 다양한 유형의 농민소설이 나타났다. 오양호는 1930년대 농민소설을 크게 투쟁형 작품군, 계몽형 작품군, 보수형 작품군, 이농형 작품군의 네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오양호,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90, 208-240면 참고.)

32) 1920~30년대 농민문학 논의에 대해 박진숙은 이는 ‘당위’로서의 농민문학 설

적 부르조아 혁명으로 놓고 토지혁명과 빈농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던 바, 이때 당위로서의 농민문학 설립이라는 것은 곧 볼셰비키화 과정을 통해 조직을 주도하게 된 소장파들이 당의 지향성에 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토지』는 민주주의 민족문학을 내건 조선문학가동맹이 별도의 하부 조직을 구성해 시의성을 가진 특수한 문제라 할 토지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고자 기획되었다.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시기적 간극을 갖는다. 이에 더해 달라진 명칭만큼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의 범주에 있어서도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혁명 단계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에서 그리고 운동의 기술, 문학적 실천 방식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농민소설집』과 『토지』가 보여준 차이의 기저에, 보다 본질적인 연속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볼셰비키화의 좌경화와 조선문학가동맹의 포괄적인 조직 구성은 일견 상반된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인식적, 실천적 연속성에 의거하여 보면 해방기의 조선문학가동맹은 식민지 시기 카프의 성실한 후계자인 것이다. 두 소설집이 보여준 구성과 형상화 과정에서의 차이는 정세와 관련한 조직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혁명 단계 및 과제 측면에서의 연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비로소 제대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농민소설집』과 『토지』의 차이는 코민테른의 테제 문제라기보다는 각 시기 해당 조직의 성격 및 지향 문제에 더 가깝고, 다시 이는 기저에 자리한 연속성에 기반한, 그 나름의 발전 과정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민소설집』과 『토지』의 (불)연속성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로 이어지는 프로 문학의 계보를 확인케 한다.

립에 바쳐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특히 『농민소설집』은 농민문학론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띠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박진숙,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과 농민소설의 텍스트화 양상』, 『동아시아문화연구』 52집, 2012. 11, 372면)

4. 결론

본고는 카프의 『농민소설집』과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가 가진 문제성을 확인하고 이를 함께 살핌으로써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밝히는 한편 그 의미를 모색하고자 했다. 당대 대표적인 좌익 문학 단체에서 펴낸 실질적으로 유일한 농민소설 선집이기도 한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각 시기 문제적 현실에 대한 문학적 응전과 그 실천 과정을 보여준다. 시간적 간극이 큰 만큼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조직의 성격이나 목표, 작가군의 구성이나 작품의 형상화 과정 등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카프의 강경 주류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민소설집』에 비해 『토지』는 작가군의 수와 성향 모두에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또한 『농민소설집』이 직접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 농민조합을 반복하여 다루었다면 『토지』는 토지개혁의 촉진이라는 간행 취지를 강조하였음에도 관련 범위의 폭을 넓게 잡아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차이는 각 시기 해당 조직의 성격 및 지향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두 선집은 혁명 단계와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에서 그리고 운동의 기술, 문학적 실천 방식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아울러 둘 모두 연속적인 단행본 출판 활동의 결과물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내용만이 아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자체에 대한 관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해 조직을 유표화하는 전략이자 대중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의 모색이기도 하다. 『농민소설집』과 『토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의 기저에는 본질적인 연속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이는 그 나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적, 실천적 연속성에 의거해 보면 해방기의 조선문학가동맹은 식민지 시기 카프의 성실한 후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는 절연된 것

이 아니다. 시간적 간극 속에서 『농민소설집』과 『토지』는 공유하거나 연속되는 것 속에서 부단히 문학적 활로를 모색하며 ‘차이나는 반복’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조선문학가동맹농민문학위원회편, 『토지』, 아문각, 1947. (조선문학가동맹총서 1~4(영인본), 도서출판 창조사, 1999.)
 『농민소설집』, 별나라사, 1933.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1(영인본), 태학사.)

2. 논문 및 단행본

-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연구』, 서울대출판문화원, 2014
 권환, 「하리코프대회 성과에서 조선프로예술가가 얻은 교훈」, 『동아일보』, 1931. 5. 14.
 김영진, 「해방기 대중화론의 전개」, 『어문론집』 28호, 2000.
 김윤식 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김진석,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 연구」, 『인문과학연구』 3, 1994. 6.
 류양선, 「KAPF 『농민소설집』의 정치적 성격-적색농민조합운동과 관련하여-」, 『덕성어문학』 제6집, 1989.12.
 _____, 「<카프>의 농민소설과 <조선농민사>의 농민소설 : 송영의 「오전 9시」와 허문일의 「자주촌」의 경우」, 『문학과 비평』 15, 1990.
 박승극, 「농림소설집-농민문학문제와 관련하야」, 『조선일보』, 1933. 12. 10.
 _____, 「『농민소설집』 Book Review」, 『조선일보』, 1933. 12. 14.
 박정선, 「해방기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화대중화 담론과 조직적 실천」, 『어문학』, 2006.
 박진숙,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과 농민소설의 텍스트화 양상」, 『동아시아문화연구』 52집, 2012. 11.
 박필현, 「조선문학가동맹의 『토지』 연구-좌우익 갈등기, 문화적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1집, 2015.
 신춘호, 「해방직후의 농민소설연구」, 『비평문학』 3, 1989.
 오양호,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1990.
 윤기정, 「무산문예가의 창작적 태도」, 『조선일보』, 1927. 10. 14.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 대중화 운동의 의의와 성과에 대한 연구」, 『선청어

문』 18, 1989.

이경란, 「1930년대 농민소설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화’와 농민생활」,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연대국학연구원편, 해안, 2004.

이미림, 「카프의 <농민소설집> 연구」, 『인문학보』 20호, 1995.

이순옥, 「카프의 매체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불별』」, 『한국문학논총』 제37집, 2004

이원동, 「예술 대중화 논쟁과 매체 전략의 의미」, 『어문학』 제127집, 2015

임영천, 『카프 문학과 비평의 논리』, 다운샘, 2006.

임화, 「송영형께」, 『신동아』, 1936.5.

조영복, 「권환의 대중화론과 매체론적 지평」, 『한국시학연구』 25집, 2009.

조정래, 「농민소설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1989.

차승기,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대중화」(『한국학연구』 제37집, 2015.

한만수,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37집, 200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APF's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And
Korean Writers Alliance's 『Toji(The Land)』
—Focusing on Their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Park, Pil-Hyeon

In this paper,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Byeolnarasa, 1933) of KAPF and 『Toji(The Land)』(Ahmungak, 1947) of Korean Writer's Alliance were compared to examine their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is the collection of representative peasant novels of KAPF at the time of publication in 1933, and 『Toji(The Land)』 is the novel collection published by the peasant literature committee of the special committee in Korean Writer's Alliance in 1947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s KAPF and Korean Writer's Alliance occupy a prominent plac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diverse approaches have been consistently made to those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ties. Yet,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s focusing on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and 『Toji(The Land)』 themselves except for individual approach to some of the works in each collection, and discussions on both of the two texts are actually hard to find.

Publication is proceeded in a certain situation by a certain chance with its own purpose. While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of KAPF was a part of the efforts to find a way out i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trol and crisis in 1930s, 『Toji(The Land)』 of Korean Writer's Alliance is an example that shows the process of how literature sought for its practical role while facing a pile of tasks and sharp conflicts during the period of confusion in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publication of those two texts was achieved in the middle of the situational changes, awareness of the crisis, and the following emphasis on creation for popularization. In other words,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and 『Toji(The Land)』 show, both in the process of their publication and contents, the actual aspects of the problematic reality, such as control and suppression explicitly revealed through the war in a full scale and affairs of arrest, changes in the policies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and the real occurrence of conflicts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in full swing, and how the discussions to overcome them, such as popularization theory, had been accepted and realized through the selected works under the names of the organizations in their own way. Both of the two texts also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were the outcome of each organization's particular intention in order to stress literary practice to cope with specific problematic reality(shift to military rule by the Japanese Empire in 1930s and farm tenancy dispute, direct political intervention into the agriculture society, such as Nammyeonbukyang(growing cotton in the south and raising sheep in the north, 南綿北羊) policy, and land reform in the liberation period and so on), which was different from other anthologies planned and published as series by each organization.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the standards of edition,

description of intentions, characteristics of the figures and conflicts, and the arrangement of the works, and etc. And these differences can be said to have been possible by the recognition of the limits of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that had been published earlier along with the differences in the circumstances or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popularization.

The two texts are never light in that they show the aspects of specific acceptance and realization of various discussions and the emphasis on creation for publication as practice and as the reaction to the crisis. Examining these two texts together that seem to have been repeated with a gap would raise interest in the works which have been neglected, and also offer another approach to the theory of popularization or peasant literature.

Key words: 『Nongmin Soseoljip(Peasant Novel Collection)』, 『Toji(The Land)』, KAPF(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the Korean writers alliance, the peasants novel, the popularization theory, Publishing activities, Media movement

투 고 일 : 2018년 8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2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